

지붕 뚫는 장애사역

1. 성경이 말하는 장애의 보편성

• 성경 속 장애 관련 통계:

- 성경 전체 구절 중 1,442구절(4.6%)이 장애 관련 (누가복음 전체 분량보다 많음).
- 직접적 장애 구절 594개, 장애 단어 포함 구절 744개.
- 예수님의 표적 및 이적 중 약 40%가 장애인 치유 사역.

• 성경이 전하는 3가지 메시지:

- ① 하나님은 장애 문제를 결코 소홀히 대하지 않으신다.
- ② 장애는 인간 삶에서 매우 보편적인 일이다.
- ③ 예수님은 이 땅에서 직접 장애인 사역을 행하셨다.

• 보편적 일상으로서의 장애:

- WHO 기준 세계 인구의 10% (미국 13%, 정신질환 포함 시 18.7%).
- 노인성 장애: 기대수명(84.5세)과 건강수명(68~70세) 사이의 시기에 누구나 경험하는 필연적 과정.

2. 예배 공동체와 교회의 문턱

• 교회의 현실과 성경적 가치관:

- 한국 장애인의 개신교 출석률은 약 3% 수준 (청년 복음화율 3%에는 큰 관심과 자성이 일어나지만, 장애인 출석률 3%에는 무관심했던 우리의 한계를 회개하고 자성해야 함)

• 예배의 본질 회복:

- 예배는 소수 전문가나 관람자의 지적 교류 장이 아니라, 누구나 올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은혜의 마당.
- 성찬(Sacraments)의 은혜

• 고차원적 존중과 배려의 문화

3. 하나님 나라의 표적과 부활의 소망

•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방식:

-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단순한 권능 과시가 아니라, 가장 낮고 소외된 곳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정신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표적.
- 효율성·성공주의·성과주의 세상에 대한 거룩한 저항.

•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명 (요 9:3):

- 죄 때문이 아닌 “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”.
- 육체의 가시와 연약함 속에서도 알고 걷는 길이 아닌 믿음으로 걷는 성도들을 향한 부르심.

• 마침내 도래할 회복의 날 (사 35:5-6):

- 맹인의 눈이 밝아지고, 못 듣는 자의 귀가 열리며, 저는 자가 사슴 같이 뛰고, 말 못 하는 자의 혀가 노래하는 완성과 부활의 소망.